

고3 올 2학기부터 '학비면제' 연 2조 무상교육 재원은 숙제

교육부, 내년엔 '고2'까지 적용 입학금·수업료 등 4개항목 지원 사립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절감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전체 고교 무상교육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완성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과 다른 것으로 내년에는 고2에 적용, 2021년엔 고1까지 전체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무상교육 대상은 44만명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 지원

된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은 88만명으로 늘고, 2021년부터는 126만명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고3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협조로 편성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전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2020년~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맨몸으로 한강 건너는 사람들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서 열린 2019 한강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 인도네시아은행 내달 출범

외환 전담부서, 한국데스크 신설 현지기업·韓진출기업 지원나서

오는 9월 IBK인도네시아은행이 출범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합병 승인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은행은 기업은행이 올해 1월 인수한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이다.

합병승인은 인수승인 후 8개월만이다.

이번승인으로 기업은행은 다음달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외환 전담부서와 한국데스크 등도

신설해 현지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한다.

현지 중소기업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해 글로벌 동반자금융을 강화하고 현재 30개의 영업망(아그리스 17개, 미트라니아가 13개)을 2023년까지 55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 쌓은 역량을 인정받아 현지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베트남 지점의 법인전환, 미얀마 진출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아시아 금융벨트를 완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업은행은 오는 9월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정식 출범한다. IBK기업은행전경. /IBK기업은행

"환차손 우려... 불완전판매 주의해야"

>> 1면 '안전자산 선호...'서 계속

하지만 외화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원화 강제(원·달러 환율 하락)가 이어질 경우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또 외화를 원화로 변경할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관리비용이 높아 해당 비용 차감시 실제 수익률은 크게 줄어줄 수 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외화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

하고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초저금리,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화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덩달아 외화보험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외화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2014년 922건에서 작년 2543건으로 늘어났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가 77%를 차지한다.

이 같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외화보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고령자 판매 시 친족 동석 ▲은행의 판매수수료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향후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뤄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신축 '강제' 재건축 '약세'

재건축단지 0.02% 올라 상승폭 ↓ 5년이하 신축아파트 0.05% 올라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동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호가는 크게 떨어진 반면 신축아파트는 오르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집값은 0.02% 올라 전주 상승 폭(0.04%)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의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2%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7%포인트 낮아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21억1425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현재 호가 21억원을 밀도는 매물도 여럿 나와있는 상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도 지난달 초 19억70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 사이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8억7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설계변경과 1대1 재건축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일 때는 분양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준공 5년 이하의 신축아파트는 지난주 0.05% 올라 오름폭이 전주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발표 이후 아파트 가격동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7월에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신동아파빌리에 2차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전용면적 84㎡ 매물이 역대 최고가인 7억6800만원에 거래됐다. 약 한 달 전 7억3000만원에 거래했던 것보다 3800만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9월에 준공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전용면적 84㎡)도 지난달 26억원에서 현재 26억5000만원부터 28억원까지 시세가 형성돼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전용 114㎡의 분양권은 지난달 29일 11억1250만원에서 11억2370만원에 매매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12억349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급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악화와 사업 추진 일정 연기, 신규 아파트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유리 기자